



올림픽축구대표팀이 25일 이바라키현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루마니아와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막내형' 이강인(15번)의 멀티골 활약에 힘입어 4-0 대승을 거뒀다. 28일 온두라스전을 비롯한 앞으로의 경기들에선 '형남' 황의조(16번)와 권창훈(10번)이 기대에 부응할 차례다. 스포츠동아DB

황의조·권창훈 “8강은 형들이 해결하마!”

와일드카드 황의조·권창훈 침묵
루마니아전 4-0 대승에도 찜찜
골 결정력 끌어올려야 8강 가능

순위	국가	승-무-패	승점	득점	실점	득실차
1	한국	1-0-1	3	4	1	+3
2	온두라스	1-0-1	3	3	3	0
3	뉴질랜드	1-0-1	3	3	3	0
4	루마니아	1-0-1	3	1	4	-3

※28일 오후 5시(30분 조별리그 최종전)
▶한 국-온두라스(요코하마), 뉴질랜드-루마니아(삿포로)

연었다. 특히 '막내형' 이강인(20·발렌시아)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2-0으로 앞선 후반 33분 황의조(29·보르도)를 대신해 교체 투입된 그는 후반 39분 설영우(울산 현대)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데 이어 경기 종료 직전에는 강윤성(제주 유나이티드)의 패스를 왼발 솜으로 마무리해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아쉬움이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다. 화끈한 골 잔치 속에서도 베테랑들은 또 침묵했다. 와일드카드(만 25세 이상) 자원으로 선발된 스트라이커 황의조와 '다용도 공격수' 권창훈(27·수원 삼성)은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다.

특히 황의조는 '김학범호'에서 유일한 타깃형 스트라이커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22명의 올림픽 엔트리에서 전문 공격수는 황의조밖에 없다. 부담이 너무 큰 탓인지 뉴질랜드전에서 상대의 밀집수비에 고립됐던 그는 루마니아전에서도 찬스를 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여러 차례 결정적 순간을 맞았으나 모두 불발됐다.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 개인 특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의 마음이 편할 리는 없다.

5년 전 리우데자네이루대회에 이어 생애 2번째 올림픽무대를 밟은 권창훈도 아직은 임팩트가 크지 않다.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측면 날개로도 무난하기만 할 뿐 강렬하진 않다. 후배들에 비해 확실하게 앞서있는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베테랑들에 대한 김 감독의 신뢰는 굉장히 두텁다. 그라운드에서의 실력뿐 아니라 팀이 흔들릴 때 후배들을 다독이는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다. 루마니아전 대승으로 인해 온두라스전을 앞두고 '경우의 수'는 사실상 지워졌다. 패하지만 않으면 8강 토너먼트에 오른다. 그러나 '지지만 않으면 될' 경기가 가장 어려운 법이다. 와일드카드 형님들이 진가를 발휘할 순간이 다가왔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김지연(왼쪽)이 26일 지바 마쿠하리멧세홀B에서 열린 2020도쿄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 32강전에서 나타 하페즈(이집트)를 15-4로 누르고 16강에 진출했다. 세 번째 올림픽에 나선 김지연은 2012런던대회 이후 9년만의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16강을 통과하지 못했다. 같은 종목의 윤지수, 최수연도 16강에서 탈락했다. 지배(일본) | AP뉴시스



서승재(뒤)-채유정(앞)은 26일 도쿄 무사시노노모리종합스포츠홀라자에서 열린 배드민턴 혼합복식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세계랭킹 1위 정쓰웨이-황아충(중국)조에 0-2로 졌다. 하지만 2승1패를 마크해 조 2위로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도쿄 | AP뉴시스

믿었던 펜싱 간판 김지연 16강 탈락 다이빙 첫 싱크로 우하람·김영남 7위

김서영, 여자수영 개인혼영 200m 준결승 진출
탁구 남자단식 장우진 3회전 역전극 16강 합류

펜싱 여자 사브르의 간판 김지연(서울특별시청)이 16강에서 탈락했다.

김지연은 26일 지바현 마쿠하리멧세홀에서 열린 2020도쿄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 16강전에서 마리엘 자구니스(미국)에게 12-15로 졌다. 2012런던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김지연은 이번 대회를 통해 9년만의 메달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첫 경기인 32강전에서 나타 하페즈(이집트)를 15-4로 완파한 김지연은 런던대회 당시 준결승 상대였던 자구니스와 16강에서 만났다. 김지연은 런던대회 때 세계랭킹 1위였던 자구니스를 꺾고 결승에 올라 소피아 벨리카야(러시아)를 따돌리고 중국 사브르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2피어리드에서 9-9로 균형을 맞추는 등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이후 내리 3실점하며 흐름을 빼앗긴 채 무릎을 꿇었다.

김지연과 함께 출전한 윤지수(서울특별시청)와 최수연(안산시청)도 16강전에서 각각 자이나브 다이베코바(우즈베키스탄)와 언너 마르틴(헝가리)에게 패했다. 남자 플뢰레 개인전에 한국선수 중 유일하게 출전한 이광현(화성시청)은 킬링 보로다체프(ROC)와 32강전에서 14-15로 역전패했다. 이로써 남자 사브르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의 동메달 하나만 쟁긴 한국펜싱은 27일부터 남녀 에페와 사브르 단체전에서 메달을 노린다.

한국여자수영의 간판 김서영(경북도청)은 이날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벌어진 개인혼영 200m 예선에서 2분11초54의 기록으로 전체 출전선수 27명 중 15위로 준결승 티켓을 따냈다. 예선 상위 16명이 경쟁하는 준결승은 27일 펼쳐진다.

한국다이빙 사상 처음으로 싱크로 종목 올림픽무대에 선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김영남(제주도청)은 남자 싱크로 10m 플랫폼 결승에서 8개 조 중 7위에 자리했다. 임상권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번 경기 출전만으로도 한국다이빙의 새 역사로 기록됐다.

배드민턴 혼합복식의 서승재(삼성생명)-채유정(인천국제공항)은 8강에 진출했다. 서승재-채유정은 혼합복식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세계랭킹 1위 정쓰웨이-황아충(중국)에게 0-2(14-21 17-21)로 졌지만 2승1패로 조 2위를 차지해 준준결승에 올랐다. 탁구 남자단식 3회전(32강)에선 장우진(미래에셋증권)이 폴 드린칼(영국)에 4-1(7-11 12-10 11-8 11-8 11-7)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합류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뒀다 Z세대!...‘10대 돌풍’은 계속된다

황선우·신유빈·이강인·이의리...
“이젠 내 차례” 부담 대신 패기

한국의 2020도쿄올림픽 금맥은 막내들이 뚫었다. 한국 남자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김제덕(17·경북일고)이 안산(20·광주여대)과 함께 쓴 이야기. 이번 대회에는 주목할 만한 2000년대생들이 즐비하다. 주민 등록번호 뒷자리가 3(남성) 또는 4(여성)로 시작하는 이들이 쓸 이야기가 벌써부터 흥미롭다.



김제덕 안산 황선우
한국의 스타트를 끊은 김제덕은 24일 양궁 혼성단체전에 이어 26일 남자단체전 금메달까지 수확해 2관왕에 올랐다. 긍정적 기세는 전염성이 강하다. 포래들이 그 흐

름을 잇고 있다. 한국수영의 미래로 꼽히는 황선우(18·서울체고)는 26일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에서 1분45초53, 전체 6위의 기록으로 결승행 티켓을 따냈다. 한국수영 경영 종목의 올림픽 결승 진출은 2012런던대회 박태환 이후 9년만이다.

탁구 신동 신유빈(17·대한항공)은 25일 벌어진 여자단식 2회전에서 베테랑 니시 아리안(독일부르크)에게 4-3 역전승으로 3회전에 올랐다. 2004년생 신유빈이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을 상대로 똑심 있는 경기를 펼쳐 41세의 나이차를 딛고 일어섰다는 것은 나이와 경험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는 스포츠만의 매력이다.

이밖에도 축구 이강인(20·발렌시아), 야구 김진욱(19·롯데 자이언츠), 이의리(19·KIA 타이거즈)도 주목할 만한 2000년대생이다. '막내형'으로 불리는 이강인은 25일 조별에선 루마니아전에서 멀티골로 활약했고, 김진욱과 이의리는 베테랑 김경문 대표팀 감독도 엄지를 치켜들 만큼 강한 구위로 무장했다. 1996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Z세대'로 분류된다.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했고,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들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마음껏 어필하고, 부담 대신 줄거를 추구한다. 이른바 '이유 있는 패기'인 셈이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개막식 이어 이번엔 축구 자막사고...나사 풀린 MBC

루마니아 자책골에 “고마워요 마린”
루마니아축협 “조통당한 기분” 발끈
박성제 사장 “배려 부족했다” 사과



MBC가 2020 도쿄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잇단 부적절한 자막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MBC 박성제 사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공 | MBC

MBC가 또 다시 2020 도쿄올림픽 중계 도중 부적절한 자막을 내보냈다. 이에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난까지 이어지자 결국 박성제 사장이 사과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방송가에서는 스포츠국의 자회사 이관 등 조직적·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MBC는 25일 남자 축구 조별리그 B조 2차전 한국과 루마니아의 경기 중계에서 자책골을 기록한 루마니아의 마리우스 마린을 두고 “고마워요 마린”이라는 자막을 노출해 비난을 샀다. 앞서 23일 개회식 중계에서도 선수단 입장 순서 중 우크라이나와 아이티 등 일부 나라를 소개하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진과 대통령 암살 사건 등 부적절한 영상과 자막을 사용해 쏟아지는 비난을 받았다.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하며 지적

했다. CNN은 “MBC는 일부 그릇된 고정 관념으로 국가를 묘사했다”며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의 나라로 소개되면 어땠겠느냐”며 비난했고, 뉴욕타임스 역시 “MBC는 (해당 국가들에) 공격적이거나, 부정적 편견이 포함된 내용의 이미지를 사용해 시청자를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AFP통신, 영국 인디펜던트, 미국 폭스뉴스도 일제히 부적절한 이미지 사용과 자막을 비판했다.

●“올림픽 정신에 대한 인식 미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박성제 사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박 사장은 “1차 경위를 파악한 결과 특정 몇몇 제작진을 징계하는 것에서 그칠 수 없는, 기본적인 규범 인식과 콘텐츠 감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철저히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도 반드시 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6일 현재 관련 인력 중 일부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방송가에서는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관련 콘텐츠에 지나치게 가볍게 접근하려는 관행적 시각이 작동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박 사장은 “지구인의 우정과 연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참가국을 존중하지 못한 ‘인식 미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조직개편 여파...중계 경험자 없어”

방송가 안팎에서는 올해 초 MBC 스포츠국을 자회사인 MBC플러스로 이관하면서 생겨난 내부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된

사고라는 시선이 나온다. 당시 스포츠 콘텐츠 제작하는 일부 PD들이 다른 부서로 재배치됐다.

이에 대해 스포츠국 구성원들은 “도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경쟁력 약화’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도 “제작·기획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남기고 프로그램 중계 및 제작 기능을 이관하면서 PD 인력을 22명에서 10명으로 줄인 상황에 제작 인력이 공급되지 못해 올림픽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MBC 한 관계자도 “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까지 제대로 조직을 구축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내부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올림픽 관련 제작진은 대형 스포츠 중계 경험이 없는 인원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사장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올림픽 정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참가국을 존중하지 못한 규범적 인식이 미비했다”며 “바쁜 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화면이 만들어졌고, 별다른 테스트(감독·관리) 없이 부실하게 이뤄졌다. 마지막에 일이 물리면서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